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모두의 예술’

장애인 예술가와 비장애인 예술가가 함께 꿈을 꾸다.

장애인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격려하고 나아가 미술 작품의 향유, 유통을 견인하기 위한 미술축제가 마련됐다. 예술인들은 꿈을 펼칠 기회를 시민들은 장애 예술인들의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만나는 자리다.

장애인 아트페어인 광주에이블아트위크(총감독 이묘숙)가 오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모두의 예술-Dream Art’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에이블아트위크는 장애 예술의 가치와 아울러 시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에이블(able)이 ‘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를 상징하듯 장애는 불편할 뿐이지 꿈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 중에는 작가로도 활동하는 그룹 클론의 강원래와 발달장애인이기도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한지민 언니’로 인기를 끌었던 정은혜의 아트 토크도 예정돼 있어 관심을 끈다.

이번 아트페어는 (사)광주장애예술인협회(회장 전자광)가 주관하며 광주시, 광주교육청, 광주문화재단, 광주관광공사, 5개 구청 등이 후원한다. 또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서울·대구·부산 등 타 지역 장애 예술단체들이 협력한다.

이묘숙 총감독은 “에이블아트위크는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데서 출발했다”며 “이번 행사가 전시와 판매, 교류가 함께하는 복합예술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에이블아트위크는 하진 전남대 미대 교수를 비롯해 김근태 작가 등 지역 작가 60여 명 등 모두 200여 명의 8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회화를 비롯해 조각, 사진, 공예, 미디어아트 등 장르도 다채롭다. 또한 장애인 작가 외에도 떠오르는 신진 작가들도 함께 페어에 참여해 축제의 의미를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

행사와 맞물려 2회의 프리뷰 전시도 마련돼 있다. 22일까지 양림동 S갤러리, 11월 4~11일 시립미술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언급한대로 에이블아트위크 본 행사 개막식이 열리는 11월 13일에는 강원래와 정은혜의 아트토크쇼(오후 3시 30분)도 펼쳐진다. 작품에 담은 내용 등 예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후 5시에는 평창올림픽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석창우 작가가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장애인 아트페어 ‘에이블아트위크’ 11월 13~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작가 200여명 참여...프리뷰 전시도



전동민 작 '광주전경'



박정일 작 'Family'



2025광주에이블아트위크가 오는 11월 13~1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지난 2023년 펼쳐진 광주에이블아트페어 모습. <광주장애예술인협회 제공>

이밖에 이번 에이블아트위크는 ‘ESG 아트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ESG 경영과 장애 예술의 만남을 꾀하는 한편 ‘세계해택 최적화’ 프로그램으로 장애 예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자광 광주장애예술인협회 회장은 “이번 에

이블아트페어는 예술 분야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포용’의 의미와 가치 등을 사유해볼 수 있는 계기”라며 “예술을 토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방식은 앞으로의 사회 통합과 화합의 차원에서라도 시사점을 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등미술대전 대상에 김승효 작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세요!’

서예, 윤동옥 ‘이은상 시’ 문인화, 김민효 ‘맑은 향기’

제35회 어등미술대전 대상에 김승효 작가의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세요!’가 선정됐다.

회화 부문 대상 수상작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세요!’는 “동시대적인 색채와 오브제의 활용을 통한 현대적인 표현을 완성도 높게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창작지원금 300만원, 개인전 개최 기회가 주어진다.

광산문화원(원장 오동근)은 최근 심사회를 열어 부문별 수상작을 결정했다.

이번 미술제에는 300여점이 공모했으며 이 가운데 회화40점, 서예·문인화 123점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회화 부문 최우수상은 김지민의 ‘박제’에게 돌아갔다. (창작지원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서예부문 ‘어등대상’은 윤동옥의 ‘이은상 시’, 문인화 부문 김민효의 ‘맑은 향기’가 각각 선정돼 창작지원금 300만원, 개인전 개최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최우수상은 서예부문 홍아란의 ‘제주제영’이 결정돼 창작지원금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심사위원들은 어등대상 수상자 윤동옥 작품에 대해 “정통궁체의 정법을 지켜 기본획의 정석을 잘 드러낸 단아하고 조화로운 결구가 돋보였다”며, 문인화 어등대상 수상자 김민효의 작품은 “홍매 작품이 먹색과 맑은 꽃잎의 색이 잘 어우러져 구도 또한 완벽했다”고 각각 호평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13일이며, 특별상 이상 입상작 전시는 오는 11월 13일~19일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펼쳐진다.

대화장인 오동근 광산문화원장은 “이번 미술대전은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대거 응모됐을 뿐 아니라 다양한 감성과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았다”며 “향후 있을 입상작 전시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회화 부문 대상 김승효 작 '이해하려고...'



문인화 대상 김민효 작 '맑은 향기'

오보에의 서정, 가을을 물들이다

광주시향 ‘오티움 콘서트IV-Oboe’...23일 광주예술의전당

오보에는 가장 인간의 목소리에 가까운 목관악기로 꼽힌다. 부드럽지만 단단하고, 선명하면서도 따뜻한 음색으로 감정의 결을 섬세하게 전한다. 그 맑은 울림이 가을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은 오는 23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오티움 콘서트IV-Oboe’를 선보인다. 무대는 해설과 연주가 어우러지는 레저 콘서트 형식으로 꾸며지며 목관악기 특유의 서정과 따스함을 중심으로 오보에의 음악적 세계를 조명한다.

이번 공연은 지휘자 시몬 에델만, 오보이스트 임현애, 해설자 나웅준이 함께 이끈다.

독일 포그트란트 필하모니에서 활동 중인 시몬 에델만은 국제 지휘콩쿠르에서 주목받은 젊은 지휘자다. 그는 이번 무대에서 섬세하고 균형감 있는 해석으로 오보에 중심의 관현악을 이끌어 관객에게 새로운 클래식 감상의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협연을 맡은 오보이스트 임현애는 금호 영재 콘서트와 조선일보 신인음악회를 거쳐 국제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연주자로, 현재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국립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연은 라벨의 ‘쿠플랭의 무덤’으로 문을 연다. 제1차 세계대전 중 희생된 친구들을 추모하며 작곡된 이 곡은 오보에의 따뜻하고 유려한 선율이 섬세한 화성과 어우러져 고요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어지는 슈트라우스의 ‘오보에 협주곡’은 오보에



지휘자 시몬 에델만

의 다채로운 음색과 탁월한 테크닉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임현애는 맑고 투명한 선율과 섬세한 감정을 오가며 관객에게 깊은 몰입의 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의 대미는 바그너의 ‘지그프리트 목가’가 장식한다. 사랑과 평화를 주제로 한 이 작품은 목가적인 선율 속에서 오보에의 온화한 음색이 중심을 이루며 오케스트라 전체에 부드러운 따스함을 더한다.

광주시향 관계자는 “오보에의 매혹적인 음색을 통해 가을의 서정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해설과 연주가 어우러진 오티움 콘서트를 통해 클래식식의 여유와 깊이를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석 2만 원·A석 1만 원,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티켓링크 예매. 초·중·고생 이상 관람 가능.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오보이스트 임현애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의 설장구 무대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진도에 울려 퍼지는 국악의 흥과 정취

국립남도국악원, 18일 진악당

국거리장단이 흐르고, 장구소리에 어깨가 들쭉인다. 흥과 정취를 담은 무대가 남도의 가을을 물들인다.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오는 18일 오후 3시 진악당에서 ‘국악의 향연’을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토요일상설공연 ‘국악이 좋다’의 일환으로, 기악·무용·민요·사물놀이 등 전통음악의 맛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종합공연이다.

첫 무대는 남도의 시나위와 판소리의 정서를 품은 기악합주 ‘산조합주’가 연다. 즉흥성과 개성을 중시하던 산조를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하며 새롭게 풀어내, 익숙한 선율 속에서

도 신선한 호흡을 전한다. 이어 가야금병창 ‘편지춘’과 ‘가자어서가’, 대금독주 ‘청성곡’이 잔잔히 이어지며 국악기의 다채로운 음색과 여운을 들려준다.

또 정중동(靜中動)의 미학이 깃든 ‘살풀이춤’도 감상할 수 있다. 느릿한 장단에 맞춰 흰 수건이 부드럽게 허공을 그리며, 풀어내듯 이어지는 동작이 한을 씻어내는 듯한 깊은 울림을 남긴다.

공연의 대미는 ‘김오재류 선반설장구’가 장식한다. 빠른 손놀림과 역동적인 발제간이 어우러진 장구놀이는 가을 풍류의 흥취를 절정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료 무료.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세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